

목포 장례지도사 열악한 처우 여전

최저임금 미달·4대 보험 미가입 하루 10시간 근무 9만 원 미만 파견 간접고용 구조의 사각지대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도우미)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지역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50)는 "아침 일찍 출근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온종일 일하지만, 하루 수당은 9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토로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00원으로, 하루 10시간 근무 시 최소 10만원 이상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김 씨는 목포 A 장례식장에서 하루 10시

간 근무하고도 9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처우를 받는 지도사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개 상호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라는 점이다. 파견 또는 외주 형식의 고용 구조 탓에 고용주가 불분명하고 노동조건이나 임금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례지도사들은 단순 안내 업무뿐 아니라 빈소 정리, 상주 응대, 조문객 안내, 음식 서빙 등 다양한 신체·정서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분류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등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

김 씨는 "작년에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비를 전부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장례지도사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 속에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계는 장례식장 도우미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4대 보험 의무 적용과 고용 형태의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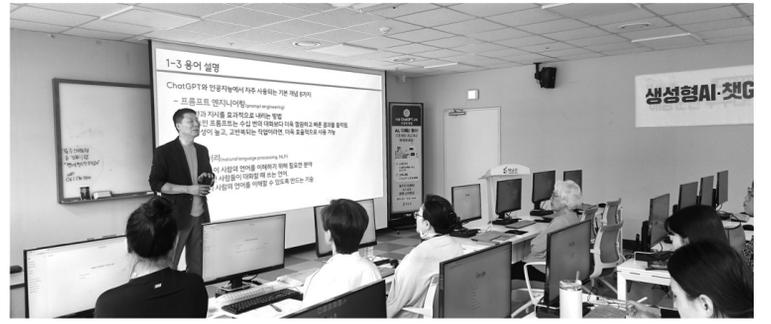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례식장 도우미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명확한 고용 구조 확립과 함께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업무가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무시되어선 안 된다"며 "간접 고용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주 책임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간접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이나 현장의 복잡한 고용 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주민 맞춤형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소상공인 마케팅 활용 집중

해남군이 주민 맞춤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 군민의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는 4회에 걸쳐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챗GPT 활용법을 비롯해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펠로(Felo) 등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보는 과정을 통해 AI의 다양한 활용법을 익히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블로그 글쓰기 등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교육을 통해 각종 기법들을 자신의 가게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교육에 참여한 소상공인 김모씨는 "홍보 문구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꾸미는데 경험이 없어 어려웠는데, 글쓰기도 쉽게 해줘서 간단한 수정만 거치면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내 가게에 직원 이 한명 더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7월에는 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총무과 정보통신팀(061-530-5461)에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호우 피해 예방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장비 운영자도 함께 처분

영광군이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분야는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불법 태양광 패널·공작물 설치' 등이다.

영광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단순히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골삭기·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도 함께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개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공사중지 명령 위반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줄 것"이라며 "장비 운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작업 전에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지난 23일 신안군가족센터 교류소통실에서 '2025년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사전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이번 연수에 최종 선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과 학부모 30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섬 초등생 3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

7월 23일부터 4주간 현지 수업

겨울엔 중학생 미국...18년째 지속

신안의 섬 지역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가 18년째 지속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Elm Park School에서 지역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어학연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현지 정규수업과 함께 영어 집중교육(ESOL),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국제적인 감각, 자율성, 그리고 문화적 포용력을 기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신안군은 이번 연수 참가자 선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YBM/한국TOEIC위원회에 위탁해 지난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중 신안군 내 중학교에 진학해 졸업하겠다는 서약을 한 학생에게 주어졌다. 신안군의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코로나 시기 등을 제외하고 18년째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올 해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생에 이어 겨울방학에는 중학생 30명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432명의 학생들이 뉴질랜드(초등학생 278명)와 미국(중학생 154명)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제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국제 감각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수를 준비했다"면서 "신안군은 앞으로도 교육지원과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꿈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너 어디 있느냐'...목포서 문규현 신부 북토크

내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컨벤션홀 인권·평화 외길 진솔한 이야기

한평생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걸어온 문규현 신부의 삶이 담긴 '너 어디 있느냐' 북토크가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목포대 남악캠퍼스 창업관 1층 컨벤션홀에서 '문규현 신부 이야기 북토크'를 연다고 밝혔다.

북토크는 1부 문 신부의 그동안 활동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홍성담 작가의 문 신부를 향한 마음을 담은 자작시 낭송이 예정돼 있다.

이어 2부에는 집필에 참여한 문상봉씨의 사회로 문 신부와 토크가 진행된다.

문씨는 이번 책을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 '파자마'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보현 전남6·15주동일평화연대목포집행위원장은 "목포평화는 순천과 진도에 이어 전남에서는 세번째"라며 "토크는 문 신부님의 걸어온 길은 물론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신부의 삶을 담은 책 '너 어디 있느냐'는 고통을 은총으로 바꾸고 미래에 대한 격정을 실천으로 바꾸고자 했던 사제의 뜨거운 신앙고백을



문규현 신부 북토크 포스터.

담고있다. 문 신부가 옛 기억을 구술하고, 국어를 가르치는 문상봉·이정관·장진규·형은수 씨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익산에서 태어난 문 신부는 1971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미국 유학 중이던 1989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결정에 따라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가한 임수경씨의 손을 잡고 휴전선 북쪽에서 판문점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세간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문 신부는 '길바닥 신부'라고도 불린다. '그는 2003년 부안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름도 없는 못 생명을 살리기 위한 65일간의 삼보일배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 부안 핵폐기장 건설, 용산 참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목포=박영길 기자 ky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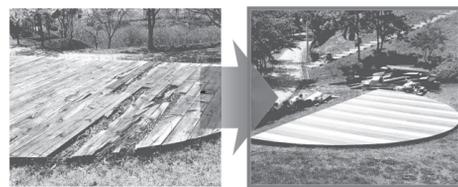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차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